

송병건 지음

『산업재해의 탄생: 직업병과 사고에 대한 산업사회 영국의 대응, 1750-1900』

도서출판 해남, 2015, vii+463쪽

I.

본서는 직업병과 사고가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또한 현 시점에 있어서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영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서의 무엇보다 큰 의의는, 첫째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에 비교하여 ‘삶의 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 ‘안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사회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산업재해의 손실일수가 노동쟁의 손실일수의 100배인 5,000만일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안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방대한 자료, 통계 그리고 연구문헌의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재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산업별·직업별 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실태를 매우 상세히 분석하고 있기에 향후 산업재해에 관한 논의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증가를 능가하는 지속적인 소득증가를 통해 이른바 맬서스 트랩을 탈출한 ‘산업혁명의 사회적 결과를 둘러싼 이른바 생활수준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II.

본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20세기가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영국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태도와 사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런 변화를 이끈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려는 시도이자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긴장과 갈등과 논의와 투쟁과 타협, 즉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의료적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제9장 맺음말에 기초하여 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본서의 분석 대상인 영국의 산업안전 수준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산업안전의 수준이 일인당 소득수준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또한 영국은 산업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 노동자 세력화, 공중보건 및 복지정책에 대한 오랜 역사적 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상기시킨다.

둘째, 저자는 직업병과 사고가 급증하는 직접 원인인 이른바 산업혁명, 그리고 직

업병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식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던 시민혁명에 대해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즉, 산업혁명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소개하며 산업혁명을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설명하기보다는 증가하는 인구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면서도 일인당 소득수준이 하락하지 않을 만큼의 생산력을 확보하게 되고 직종이 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의회에서 결정되고 정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이 의회의 승인을 통해 조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시민혁명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저자는 직업병과 관련된 사고 그리고 질병이 산업혁명의 시대에 밀집된 공간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와 함께 작업하는 가운데 급증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고와 질병은 1830년대부터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공장법 제정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식되어지게 되지만, 성인남성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계약과 관련된 모든 판단과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자유노동사상에 기초하여 제외된 점을 밝히며 그 한계를 지적한다.

넷째, 저자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부터의 전통업종이자 산업혁명 이후에도 공장의 보급으로 계속해서 주요 업종이 되었던 굴뚝청소, 작업의 특성상 전통적인 노동집단인 성인남성 노동자 이외에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노동자가 필요하여 산업혁명이 야기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직물공업, 풍부한 매장량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게 했던 탄광업,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건설의 귀착점이었던 철도업을 중심으로 직업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식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아동노동의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굴뚝청소는 의사 및 개혁가들이 언론기고 및 공공집회 개최 등을 통해 연령제한, 효과적인 기구 개발, 공중위생 개선, 감독관의 관리, 규정을 어긴 굴뚝청소의 장인과 의뢰인 문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던 아동노동 금지는 개혁운동이 시작된 이후 1세기가 지난 1875년에 실현되었다. ② 직물공업, 특히 면직공업에서는 당시의 성인남성과는 달리 온전히 ‘자유노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과 아동이 초기 공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노동시간 감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교육 의무화의 혜택을 점차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공장안전의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즉 공장감독관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을 소송하여 안전방책을 갖추지 않은 고용주를 좀처럼 법정에서 세우지 못했기에 산업안전 개선에 관한 공장법의 효과가 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③ 부존량이 풍부한 영국에서의 탄광업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채탄량을 늘리게 되어 갱도가 깊어지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이 커졌다. 다수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운반 기구, 취약한 환기시설 등에 의해 재해위험으로 몰아넣어졌고 탄광노동으로 발생한 괴이한 근육 등의 육체적 특징과 불결한 생활환경은 동시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④ 철도업은 자본 규모가 종래의 업종보다 매우 크기에 고용노동자 수에 있어서도 다른 산업을 압도하였다. 한편, 철도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유방임적인 기업관’을 처음에는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철도업의 사고는 중사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승객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안기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에 일반 시민들이

철도업의 재해방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이른 시기부터 주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주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여론이 확대되었다.

다섯째, 저자는 질병의 발병률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된 공중보건에 의해 저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현대의 연구자들이 신뢰성을 갖고 전국적 노동시장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영국의 1851년 직업센서스의 실명 통계를 분석하여 각 직업의 위험도를 추정하였는데, 1840년도 작성된 의회보고서와도 대비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작업 자체의 물리적 위험도뿐 아니라 도제제도의 역할 개선과 같은 제도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대표적인 질병인 티푸스, 폐질환, 콜레라의 발병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콜레라의 퇴치과정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다.

III.

평자는 경제발전에 비교하여 산업재해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경제사연구의 중요 논점 중의 하나인 생활수준 논쟁에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본서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의문점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첫째, 영국이 낮은 산업재해율을 산업화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국가마다 통계 산출방법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산업 분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간의 직접 비교에는 주의가 요망된다’(9)라는 국가 간의 직접 비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서에서의 여러 지표를 통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영국이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자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저자는 본서에서 이미 그 이유와 관련하여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영국이 이른 시기에 여성과 아동 노동자 보호와 공장규제에 관하여 입법하였지만,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시점은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에 비하여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표 2-14: 117). 그렇다면 저자는 직업병과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식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노동자 보호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영국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일본과 한국의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입법 시기는 각각 ‘1911-1920년’, ‘1951-1960년’이다(115). 여성과 아동 노동자 보호입법으로 제정된 일본의 공장법은 1911년에 제정되었고, 식민지기에 공장법 제정 논의가 진행은 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한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 즉, 매우 한정된 사례이지만 산업재해보험제도 관련 법과 노동자보호법이 동시기에 제정된 경우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점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둘째, 저자는 직업병과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과정에서의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 즉 국가의 개입보다 경영자가 노동자보호입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감소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저자는 산업재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의회, 개혁가, 노동자집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지만, 평자는 경영자의 압력에 기초한 행동이 있어야 직업병과 사고가 산업재해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재해의 탄생과정에서의 노동자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평자도 물론 이점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집단의 역할은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에 대두되었고 산업화 초기에는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과 같은 개혁적인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고 생각한다. 노동사의 대표적인 수정주의 연구자인 톰슨(E. P. Thompson)도 대표작인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에서 개혁가의 한 사람인 로버트 오웬의 사상과 실천이 영국의 노동계급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개혁적인 경영자가 다수 존재한 것도 영국의 산업재해율을 낮게 한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평자의 연구범위를 넘어선 본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였지만, 경제사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는 본서의 학술적인 공헌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탄생과정에서의 각 주체의 인식과 상호작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저자에 의한 간결한 논문을 기대하며 평자의 책무를 마치고자 한다.

(선재원, 평택대학교)